

심해와 정글을 동시에 탐험하고 싶다면...

1주년 맞은 한화 아쿠아플라넷 일산

국내 최초로 동물원과 수족관을 합친 '컨버전스 테마파크'를 표방하며 지난해 4월 문을 연 한화 아쿠아플라넷 일산이 개관 1주년을 맞았다. 아쿠아플라넷 일산은 1년 동안 관람객 100만명을 넘으며 서울·경기권을 대표하는 핫 플레이스로 각광받고 있다.

전체 수조규모 4300톤...63씨월드 4배 수족관 속 동물원 '더 정글' 동시에 체험

●바다코끼리부터 재규어까지...해상·육상·조류까지 동시 관람

아쿠아플라넷 일산은 해양생물 전시공간인 '더 아쿠아'와 육상생물 전시공간인 '더 정글'로 나뉜다. '더 아쿠아'는 메인수조인 딥블루오션을 비롯해 심해어수조, 젤리피쉬 존, 터치풀, 오션아레나 등이 있고, '더 정글'은 담수터널, 원숭이존, 재규어존, 앵무새존, 카피바라존, 양서류존 등을 갖추고 있다. 아쿠아플라넷 일산의 전체 수조 규모는 4300톤으로 63씨월드(1000여톤)의 네 배가 넘는다. 총 220여종 2만5000마리의 해양생물을 만날 수 있다. 가로 12m, 높이 9m의 메인수조 딥블루오션은 수도권 수족관 중에 가장 크다. 물을 채우는 데만 일주일 이상이 걸리는데, 가오리류와 제브라샤크 등 30종, 1만여 마리의 어류로 바다생태계를 재현했다.



한화 아쿠아플라넷 일산 '더 정글'



가로 12m, 높이 9m에 30종 1만여 마리의 해양생물을 수용해 수도권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아쿠아플라넷 일산의 메인수조. 아쿠아플라넷 일산은 해양생물부터 육상생물, 조류까지 한 번에 볼 수 있는 '컨버전스 아쿠아리움'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 | 한화리조트

개방형 수조로 관람객들이 생생하게 생물들을 관찰할 수 있는 '오션아레나'에는 바다코끼리를 비롯해 참돔, 뱀장어, 상어, 비버 등이 있다. '더 아쿠아'와 '더 정글'을 이어주는 담수터널에서는 알을 입에 물고 부화시키는 시클리드와 공포영화의 단골손님인 피라냐를 만날 수 있다. '더 정글'은 국내 유일의 수족관 내 동물원이다. 마다가스카르에서 온 알락꼬리 여우원숭이와 다람쥐원숭이 등의 원숭이존과 다양한 앵무새들의 화려한 모습을 보고 먹이체험도 가능한 앵무새존 등을 차례로 만날 수 있다. 최근에는 사슴까지 잡아먹을 수 있는 초대형 뱀 버미즈 파이톤을 새로 들여왔다.

●해양생태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

아쿠아플라넷 일산의 진짜 매력은 하드웨어와 다양한 생물개체를 활용한 교육 콘텐츠와 프로그램이다.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의 '일산 바다별 청소년 해양단'은 도시에서 접하기 힘든 해양생물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해양생태계를 이해할 수 있어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높다. 선정된 단원은 아쿠아리스트 체험, 자연체험학교 등의 온·오프라인 프로그램과 현장견학을 통해 해양생물 관련 지식을 배울 수 있다.

메인수조를 배경으로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는 '아쿠아 콘서트'도 인기가 있다. 공연구

성은 지명도 높은 유명 아티스트와 미래의 스타로 성장할 신진 아티스트들을 고루 배려했고 장르도 클래식에서 재즈, 인디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특히 무대의 배경이 되는 아쿠아리움의 환상적인 모습이 음악의 감동을 배가시키는 콜라보레이션 콘서트이다.

한편 아쿠아플라넷 일산에서는 개장 1주년을 맞아 '꽃박람회 패키지'를 판매한다. 봄꽃축제 '고양국제꽃박람회'와 아쿠아플라넷 일산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패키지로 지난해 매진을 기록했다. 꽃박람회 현장이나 소셜커머스인 티몬과 쿠팡에서도 5월 10일까지 구매 가능하다. 김재현 기자 oldfield@donga.com



삼성전자의 '갤럭시S6'와 '갤럭시S6엣지'가 10일 국내 공식 출시되면서 2015년 전략 스마트폰 대전의 시작을 알린다. 9일 서울 서초동 사옥에서 열린 '갤럭시S6 월드투어 서울' 행사에서 신제품을 소개하고 있는 삼성전자 IM부문장 신종균 대표. 사진제공 | 삼성전자

“갤럭시S6, 삼성을 부탁해”

갤S6엣지와 동시 출시...역대최고 성과 기대감

2015년 전략 스마트폰 대전이 시작된다.

첫 테이프를 끊은 주인공은 '갤럭시S6'다. 삼성전자는 9일 서울 서초동 사옥에서 열린 '갤럭시S6 월드투어 서울' 행사에서 갤럭시S6와 '갤럭시S6엣지'를 10일 국내 출시한다고 밝혔다. 신종균 정보기술·모바일(IM) 부문장(대표)은 전혀 다른 '올 뉴 갤럭시'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10일 국내를 포함해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등 20개국에서 판매를 시작한다. 삼성전자에 이어 LG전자도 29일 야심작 'G4'를 공개하는 등 차세대 스마트폰 시장 주도권 싸움이 예고된다.

●‘갤럭시S6’ 디자인 업그레이드

갤럭시S6와 엣지의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의 제품과는 다른 차별화된 디자인이다. 메탈과 글래스라는 상반된 소재를 적절히 조화해 세련된 디자인을 만들어냈다. 특히 엣지의 경우 세계 최초 양면 곡면 글래스를 적용해 새로운 스타일을 완성했다.

하드웨어 성능도 뛰어나다. 모바일 업계 최초 14나노급 64비트 옥타코어 프로세서와 LPDDR4 램, UFS 2.0 메모리를 탑재해 빠른 속도를 지원한다. 577ppi(인치 당 픽셀 수)의 5.1인치 쿼드HD 슈퍼아몰레드 디스플레이는 선명하고 생동감있는 화면을 제공한다. 카메라는 후면1600만, 전면500만 화소의 고성능 이미지센서에 F1.9의 밝은 렌즈를 달아 선명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무선충전을 지원하고 모바일 페이먼트 '삼성페이'와 보안 플랫폼 '녹스'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원한다. 출고가는 갤럭시S6의 경우 32GB 85만8000원, 64GB 92만4000원이고, 엣지는 32GB 97만9000원, 64GB 105만6000원이다.

●“역대 최고 성과 거둘 것”

갤럭시S6 시리즈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삼성전자의 올해 첫 플래그십(주력) 모델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지난해 내놓았던 '갤럭시S5'가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그 여파로 실적까지 좋지 못한 상황에서 새 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삼성전자는 '제로'에서 시작해 완전히 새로운 혁신을 담아냈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전략마케팅실 이상철 부사장은 "내부적으로 '갤럭시S' 시리즈 중 최고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종균 대표도 "갤럭시S5보다 판매량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고 강조했다. 신 사장은 또 "금속이나 글래스 모두 강도가 우수한 재질이다. 인간이 구부릴 수 있는 최대한의 힘을 견딜 수 있으니 안심해도 좋다"며 최근 불거진 '벤드게이트' 논란 약재도 일축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CJ 슈퍼레이스 12일 시동 개막전 4개 클래스 85대 차량 참가

CJ 헬로모바일 슈퍼레이스가 12일 전라남도 영암 KIC에서 열리는 개막전을 시작으로 2015시즌의 시동을 힘차게 건다.

개막전에서는 대회 메인 클래스인 슈퍼6000을 비롯해 GT, 슈퍼 1600, 엑스타V720 웨이코(엑센트, 크루즈) 등 4개 클래스, 85대의 차량이 참가한다. 특히 올해는 대회 최고 클래스인 슈퍼6000클래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 펼쳐질 전망이다. 2014년 일본 F1 드라이버 출신 엑스타레이싱 이데유지가 스

투카에 데뷔한 바 있다. 올해에는 아스트라BX 레이싱팀의 팀 베르그마이스터가 출사표를 던졌다. 팀 베르그마이스터는 2008년 독일 GT마스터스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하고 2010년에는 FIA GT3 실버스톤에서 우승을 차지한 유럽 정상급 선수다. 2014년 슈퍼6000 클래스 챔피언 아스트라BX 레이싱 조항우와 호흡을 맞춰 챔피언과 팀 우승을 동시에 노린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서는 팀들도 만만치 않다. 엑스타 레이싱팀은 연예인 드라이버 김진표 감독과 이대유지, 정의철 등 3명의 드라이버로 올 시즌 챔피언을 노린다. 지난 시즌 팀 창단 첫째 팀 3위를 기록한 만큼 빠른 성장이

기대된다.

슈퍼6000 클래스 전통의 강호 CJ레이싱도 절치부심하고 있다. 2013시즌 챔피언 황진우와 수차례 챔피언에 오른 바 있는 김의수가 챔피언에 도전한다. 특히 올해는 인제 레이싱에서 활약하던 김동은을 전격 영입하며 반드시 챔피언 트로피를 되찾겠다는 각오다.

한편 슈퍼레이스 아시아전은 2015년에도 계속된다. 5월 중국 광둥인터내셔널서킷에서 슈퍼레이스 아시아전을 시작으로 6월 중국 상하이인터내셔널서킷, 8월 일본 후지스피드웨이를 끝으로 슈퍼레이스 아시아전의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CJ 헬로모바일 슈퍼레이스가 12일 전남 영암 코리아인터내셔널 서킷에서 개막 시동을 건다. 2014년 개막전의 슈퍼6000 클래스 스톱카들. 사진제공 | CJ헬로모바일 슈퍼레이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강하게, 오래오래.. “황제옥환”

링은 늘어나야한다!!! 왜? 아프니까!! 빠지니까!!

중간에 시든다, 강직도가 약하다, 사정이 빠르다 작아서 아프고, 커서빠지고, 살이썩히고, 피부알러지 등

이런 불편한 링은 가라!!!

황제옥환은 진정한 “**링에호가**”들이 극찬한 제품입니다.

남성은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라도 굵기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하물며 팽창되었을 때에는 더욱더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그런데 링이 손에 끼는 반지처럼 고정형이라면 링속에서 남성만 수축운동을 하게 되므로 아픈 통증 등 불편함이 유발됩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황제옥환은 2026년 7월 1일까지 특허 (제30-0604759) 받은 기술로 남성이 시든 상태에서 손에 반지같이 딱 맞게 착용하면 남성이 시들었다 굵어졌다할 때 링의 늘어나는 기능이 남성과 같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기 때문에 팽창감이 일정하게 유지되어 효과가 확실하고 팽창시 아프거나 헐거워서 빠지거나 하지 않는 것이 황제옥환만의 특허받은 기능입니다.

흑매옥이란?

원석의 나이가 16억7500만년된 천연옥 원석외선 흡수는 방사능 92.7로 몸에 지니기만해도 좋은 “기”를 받을수있는데 하물며 남성에 직접착용하면 늘리는 남자의 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약에 의존했던 많은분들이 황제옥환을 착용하면서 약을 끊으셨다는 격려전화를 많이 해주십니다.

특/허/등/록 제30-0604759호

※ 본 제품은 의료가기가 아닙니다.

헬스뱅크 상담전화 1577-1780 / 010-7278-2490

NAVER 황제옥환 검색

확 바뀐 공기인형

신상품 “에이미”(amy)

유명 쇼핑몰 인기도 1위 제품 !!

국내 인체모형의 선구자 고객들이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는 공기인형

리사, 티나, 린다

“에이미”는

김스스포츠의 역사와 소중한 자신입니다

구입문의 010-3500-5324 02)423-0020

발기부전 끝 발기콜팬티

1. 당뇨, 고혈압, 성기 확대자, 발기 약먹어도 안되고, 완전 발기불능 자도, 발기콜사용 시 발기부전 없는 남자보다 더 단단하게 발기되는 전자식팬티.
2. 자연발기보다 혈액이 더 많이 올라가 많이 사용시 더 길어지는 특허품. 조루 끝 통타임
3. 본인이 사정을 조절할수 있어 발기 오래 지속되는 완전 신제품.
4. 통증없고 표시 안나 자연산 같다.
5. 발기 안 되고 빨리 끝 나면 환불

010-9607-9970 · 010-2762-2540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31길8-1, 통신강동구 2013-0738호